

2016~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(안) 심사의견서

위원명	심 사 의 견
류명찬	<p>▶ 적 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향후 5년 동안의 구정운용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중기 세입, 세출 전망 등 중기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, 검토 결과에 의해 서대문구의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하게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하여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 됨. ◦ 그러나, 향후 해외 및 국내 경제여건이 낙관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더욱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이러한 점에서 낙관적인 전망에 의해 중기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정문종	<p>▶ 적 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세입 및 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의 불확실성이 높아 지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올해도 충실한 중장기 균형예산을 수립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이며, 특히 재원별 세입규모 추계를 위한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. ◦ 그러나 발전적 차원에서 예산의 역할, 특히 중기예산의 역할은 구의 중장기적 비전을 담아내는 부분도 중요함. 중장기적인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확인하고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구의 발전과 번영·복지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비전과 그 실행방안 등을 담아내고 그 실현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필요함. 이러한 차원에서 가치 있는 활동, 수행할 만한 활동을 찾아내는 동시에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입의 규모를 함께 파악하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중기계획의 의미를 보다 높이려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임. ◦ 예산배분의 기준으로 지난 기간들의 부문별·사업별 정책효과 측면에서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바탕을 둔 예산 배분과 조정이 되어야 예산의 항목별 구체성을 높이면서 미래의 발전적 측면에서 구의 역량을 어느 부분에 보다 집중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의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.

위원명	심 사 의 견
이승연	<p>▶ 적 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경기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,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자구노력에 대한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. ◦ 복지분야 비중 증가에 따라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에 대한 반영비율이 낮은 점은 아쉽지만, 전반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은 적절하다고 생각함. ◦ 2016~2020년 서대문구 중기지방재정계획(안)에 대한 이견은 없음.
최현선	<p>▶ 적 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반적으로 적절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. ◦ 다만 외부환경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, 문화 및 환경과 관련된 지출이 향후 수요에 대비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이정아	<p>▶ 적 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6~2020년 서대문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존재원 중심의 세입증가와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, 이러한 재정구조와 여력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임. ◦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됨.
서호성	<p>▶ 적 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계획 수립과정상의 개선의견을 제시함. 중장기재정계획인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8~9월 대면심의로 1차로 검토 후 예산안 확정 후 수정·보완하여 서면심의 하도록 의견을 표명함.
장숙이	<p>▶ 적 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5개년의 중장기 구 재정운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한과 서면심의라는 운영방식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힘들었으며, 심의방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.